



# 중기부, 1800억원 규모 하반기 중소·벤처 R&D 지원 모집... 7월 31일까지 접수

 이민호 기자 | 
  승인 2020.06.23 22:31

중기부가 올해 하반기 중소·벤처 R&D 지원을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예산은 총 1800억원 규모로 기술혁신, 창업성장에 총 11개 R&D 사업 1643개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과제에는 소재·부품·장비분야 260억원, 바이오헬스·미래형자동차·시스템반도체(이하 ‘BIG3’) 203억원, AI분야 75억원 등 유망기술 분야도 포함됐다.

사업명		지원조건	지원 규모		공고시기
			과제 수	예산	
기술혁신	수출지향	최대 4년, 20억원	25개	50억원	6.24
	시장확대	최대 2년, 6억원	265개	398억원	
	시장대응	최대 2년, 5억원	270개	337억원	
상용화	네트워크형	최대 2년, 6억원	60개	90억원	9월중
창업성장	디딤돌	최대 1년, 1.5억원	356개	214억원	6.24
	전략형	최대 2년, 4억원	300개	285억원	
Tech-Bridge		최대 2년, 8억원	19개	36억원	7월1주

투자형 R&D	최대 20억원 (강소기업 최대 30억원)	10개	165억원	7월2주
예비가젤형	최대 2년, 6억원	48개	72억원	7월1주
기술규제해결형 (기획지원)	최대 3주, 0.05억원	93개	47억원	6.25
R&D기획지원	최대 4개월, 0.26억원	55개	14억원	6.24
맞춤형기술파트너	최대 9개월, 0.3억원	67개	10억원	6.24
해외원천상용화 (기술진단·기획)	최대 6개월, 0.3억원	25개	8억원	7월3주
AI기반 고부가가치	최대 1년, 최대 3억원	50개	75억원	6.22
합계		1,643	1,801억원	

\* 슈퍼컴퓨터 활용 R&D(6.24, 기술혁신 R&D에 포함 공고), 후불형 R&D(7월2주 별도 공고)

2020년 하반기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공고 계획.

■ **기술혁신 생태계 지원**=최근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고자 주요 선진국들은 신속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 자국이 보유 중인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후보물질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중기부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협업을 통해 국내 보유 최고 수준의 슈퍼컴퓨터 누리온을 활용한 신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KISTI에서 발굴한 유망 중소벤처에 R&D 서면평가를 면제하고, KISTI는 중기부 지원과제에 슈퍼컴퓨터 수수료 면제, 전문가를 통한 맞춤형 활용을 지원해 치료제, 백신 등 기술개발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3년 연속 매출액 10%이상 성장한 성장잠재력이 높은 후보기업군을 대상으로 유망품목을 발굴해 R&D를 지원하는 ‘예비 가젤형 기술개발사업’도 신규로 지원한다.

R&D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시장분석, 기술개발·사업화 전략 수립, 특허전략 수립 등 기술개발 기획을 지원하는 기획지원사업과 기업애로 사항을 공과대학 교수들이 직접 원포인트 지원하는 맞춤형 기술파트너 사업도 함께 신청을 받는다.

■**R&D지원방식 다양화**=중기부는 도전·혁신형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R&D 참여기업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다양화한 ‘투자형 R&D’와 ‘후불형 R&D’가 신설되며 내달 2주에 별도 공고될 예정이다.

우선 소재·부품·장비 및 언택트 등 분야의 과감하고 도전적인 기술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단순 출연·보조방식에서 벗어나 투자방식의 R&D를 신규로 지원한다.

민간 VC가 선별하여 선투자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최대 2배수, 30억원까지 후매칭 투자하고 성과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투자지분에 대해 최대 60%까지 콜옵선도 부여한다.

후불형 R&D는 출연금의 25% 선지급, 성공판정 후 잔액 지급을 하며, 기업이 R&D 재원의 일부를 선 투입하여,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성공판정 후 나머지 출연금을 정부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후불형 R&D를 통해 창출된 사업화 성과에 따라 기술료 감면, 후속 사업화 자금, R&D지원을 연계한 인센티브도 추가로 제공된다.

■**기업 R&D부담 완화 지속 추진**=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하고 있는 R&D 참여기업의 민간부담 및 현금부담 비율에 대한 완화 조치는 하반기 지원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반기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은 민간부담 비율을 최대 35%에서 20%까지\*, 현금부담 비율을 최대 60%에서 10%까지 하향하여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은 10%까지 추가 완화된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이 코로나19로 움츠린 시기를 극복하고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힘을 응집해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새로운 방식의 R&D 지원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R&D 수요를 반영하고 사업화 성과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산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호 기자**